

이것만 해결되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1.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 힘쓰시는 군수님과 직원께 감사드리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종면 구산리 3구 회정 마을입니다.
3. 애로사항은 마을 근처에 있는 양돈장의 독특한 냄새로 견디어 내기가 힘듭니다.
4. 거의 매일 밤 8시부터 아침 6-7까지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올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5. 이 곳에 10여년 전에 귀촌하여 지난 여러 해 동안 해당 환경 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6. 어떤때는 단속의 기미도 있었고 특히 2021년도에는 연말까지 업체에서 악취방지? 시설을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7. 그러나 현재 더 심각해지는 악취문제를 해당 부서 담당자의 답변은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니 피해 주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현재의 해결방법은 영암을 떠나면 좋겠지만 또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9. 좋은 해결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